

식민지 시기 한국 작가의 하이쿠 창작 양상과 과제

허경진* · 박혜민**

차 례

1. 들어가며
2. 하이쿠 게재 양상
3. 하이쿠 창작 계층과 활동—『카리타고』를 중심으로
4. 하이쿠 창작 양상의 특성
 - 4.1 한국의 풍경
 - 4.2 정치적 성향
5. 기존의 한국 작가의 일본어문학 연구와 하이쿠
6. 맺음말

1. 들어가며

하이쿠는 단순히 일본의 전통 시가 문학에 한정되지 않는다. 에즈라 파운드를 비롯한 서구 시인들의 하이쿠에 대한 열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주한 일본인들의 俳句會¹⁾는 물론 2006년 2월 27일, 한국

* 연세대학교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1) '草笛'(1992년 5월 5일), 'ソウル俳句會'(1993년 봄), '天爲'(2000년 9월)가 있으며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은철, 『동아시아에서의 하이쿠의 전개양상』)

하이쿠연구원(원장: 곽대기) 주최로 한국어로 짓는 하이쿠대회 K-HAIKU (韓俳²⁾)가 시작되었고 현재(2009년 기준) 제4회 째를 맞이하고 있다.³⁾

한국에 하이쿠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에 의해서였다. 그들이 어떤 문학 활동보다도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영위했던 것이 하이쿠 결사였다. 시대를 메이지시대로 한정하여 본다면, 동시대에 한국에서 결성된 총 22개의 문학결사 가운데 순수 하이쿠결사가 19개이고 와카(和歌)를 겸하여 하고 있는 1개 社를 더할 경우 한국에서 결성된 거의 대부분의 문학 결사는 하이쿠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또한 재한 일본인들은 자신들끼리의 문학 활동에 한하지 않고 한국인들에게까지도 하이쿠를 전수하였는데⁵⁾ 일본인 기요하라 가이도(清原柳童)의 지도 아래 무려 669句⁶⁾의 하이쿠를 창작하고 목포에서 하이쿠 전문 잡지 『카리타고』를 창간했던 박노식도 그 예에 해당한다.

식민지 시기 간행된 총 12종의 잡지·신문에 남아 있는 한국 작가의 하이쿠는 780句⁷⁾나 된다. 한국 작가의 일본어 문학에 관한 연구와 그 필요

- 과 번역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33집, 2007, 150~151쪽 참조
- 2) K-HAIKU라는 명칭은 한국하이쿠연구원 원장 곽대기 교수가 처음 명명하였고 김은철, 『동아시아에서의 하이쿠의 전개양상과 번역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33집』, 2007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
 - 3) 제4회 하이쿠대회 K-HAIKU는 2009년 11월 3일까지 작품 모집 중에 있고 작년에 있었던 제3회 K-HAIKU 대상작은 박점화로 「혼자 가는 길/낙엽 이불 덮은 채/낮아진 봉분」이다.
 - 4) 허석, 「동서양의 비교를 통한 해외이주일본인 문학활동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일본어문학』, 제6집, 1999, 256-257쪽 참조
 - 5) 阿部誠文의 「朝鮮俳壇」에 따르면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俳人은 27명, 쇼와시대는 39명, 단기 한국체류자들도 포함하여 대략 100명 전후의 俳人들이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평양에서부터 부산까지 18개 지역에서 句會나 21개의 俳誌를 발행하였고, 한국인들의 하이쿠 창작을 지도하였다고 한다. (김은철, 위의 논문 재인용), ソウル俳句會(2006), 『ソウル俳句會 第11句集』, 90쪽.
 - 6) 이 수치는 村上杏史가 편찬한 『朴魯植俳句集』에 수집된 하이쿠를 자료로 산출한 것이다.
 - 7) 이 수치는 와세다대학 교수인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와 호테이 도시히로(布袋敏博)가 편수한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早稻田大學 語學教育研究所 大村研究室, 1997)을 기초자료로 삼아 산출한 것이다. 이 자료집은 오무라 마스오와 임전혜(任展慧)가 편찬한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横浜: プリントピア刊,

성은 최근 김윤식, 정백수, 윤대석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그 논의가 중일전쟁(1937년) 이후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장르 또한 소설과 현대시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⁸⁾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식민지 시기 한국 작가에 의한 하이쿠의 전반적인 게재·창작 양상과 그 창작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780句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과 그 작가군에 대한 정치한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하이쿠라는 장르가 한국인 작가의 일본어문학 연구에 있어 소설을 주로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 시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2. 하이쿠 게재 양상

한국인 작가가 지은 하이쿠는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에 따르면

1984.3)을 바탕으로 하고 새로 발견된 자료를 추가하여 1997년도에 집대성한 것이다. 1882년 4월 5일 『朝鮮新報』에 게재된 金華山人 原著인 〈朝鮮林慶業傳[1]~[4]〉를 시작으로 1945년 朴興의 『興夫の兄弟』, 盛文堂書店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시기 한국인의 일본어문학을 총망라하였다.

- 8) 김윤식(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은 유진오, 이효석, 김사랑, 이광수, 최재서 등의 일본어 작품을 분석했는데 그 대상은 소설, 시, 수필, 에세이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정백수(정백수, 『한국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문화사, 2000)는 이광수, 김사랑의 문학, 즉 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다루었으며 윤대석(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은 1940년을 전후한 언어상황을 다루면서 최병일의 일본어 단편소설집 『배나무』를 분석하였다. 즉,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한국 작가의 일본어문학은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후반 이후며 분석 대상 또한 대부분 소설에 집중되어 있다. 그 밖의 논문들 1) 오영진,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씌어진 한국시 연구』 『일본학 Vol.22』,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3, 2) 노상래, 『일제 말기 소설을 통해 본 일본어 글쓰기 양상』 『현대소설연구, Vol.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3) 김환기, 『김달수의 초창기 문학 연구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모색-』 『일본학보, Vol.76』, 한국일본학회, 2008, 4) 정병호, 『20세기 초기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 내 「일본어문학」의 형성 연구 -잡지 「조선」(조선(朝鮮), 1908-11)의 「문예」란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Vol.37』, 한국일본어학회, 2008 등도 역시 소설과 현대시에 집중되어 있다.

12종의 잡지·신문에 실렸는데, 일본에서 발행된 하이쿠 잡지 『ホトトギス』와 시 잡지 『地上樂園』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에서 발행된 것이다. 이 작품들을 표-1에서 a)12종의 잡지·신문명과 b)창-폐간 연도, c) 한국 작가의 하이쿠 첫 게재정보, d) 총 게재 句수로 정리하여 표시했다. 순서는 창간연도가 아닌 하이쿠가 처음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표-19)

	잡지명·신문명, 창-폐간 연도	첫 게재 정보	句 數	비고
1	京城:朝鮮(朝鮮及滿州), 1916-41	1916. 1 (李米吉)	441	
2	京城:京城日報, 1906-45	1916. 1.1 (李米吉· 林玉星)	55	
3	日本:ホトトギス[ホトト ギス誌], 1897-	1923. 5 (朴魯植)	78	마사오카 시키(正岡 子規), 다카하마 교시 (高浜虛子) 등이 창 간한 하이쿠 잡지.
4	釜山:釜山日報, 1907-45	1929. 5.26 (金大日)	82	
5	日本:地上樂園[大地舍], 1926-38	1930. 3 (白鐵)	3	시라토리 세이코(白 鳥省吾)가 창간한 시 잡지.
6	京城:每日申報, 1910-	1937. 2.5 (朴魯植) ¹⁰⁾	6	
7	京城:綠旗, 1936-45	1940. 3.1 (30名)	30	綠旗聯盟의 기관지겸 사상교양지.

9) 잡지명 중 옆에 ()가 있는 것은 도중 이름이 개명된 경우이다. 『朝鮮(朝鮮及滿州)』의 경우 1908년 3월 경성에서 『朝鮮』을 창간하여 1941년 1월까지 총 398호가 발행되었는데 1911년부터 『朝鮮及滿州』로 개제되기 때문이다. 『三千里(大東亞)』의 경우 역시 1929년에 김동환에 의해 창간되었는데 1942년 5월 1일부터 『大東亞』로 개제되었다.

10) 박노식은 1933년 5월 13일 오전 3시에 목포시 죽동의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1937

8	京城:國民總力, 1940-45	1941. 2.7 (金鳳仙)	6	국민총력조선연맹의 기관지.
9	京城:清涼, 1925-41	1941. 3.30 (許仁穆)	4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우회 문예부 부회지.
10	京城:三千里(大東亞), 1929-1942	1941. 6.12 (李石蕪)	6	발행인, 편집인은 김동환(金東煥)이었음.
11	京城:水砧, 1941-未詳	1941. 7.25 (李淳哲)	60	조선하이쿠작가협회에서 발행
12	未詳:朝鮮 ¹¹⁾ , 未詳	1944. 4 (櫻井張鳳煥)	9	
총계			780	

표-2에서는 12종 신문 잡지의 연도별 게재 句數를 표시하여, 시기별 게재 하이쿠 句數는 물론 12종 신문 잡지의 시기별 게재 비중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표-2

	句數	[1] 朝鮮及 滿州	[2] 京城 日報	[3] ホトト ギス	[4] 釜山 日報	[5] 地上 樂園	[6] 每日 申報	[7] 綠旗	[8] 國民 總力	[9] 清涼	[10] 三千里	[11] 水砧	[12] 朝鮮
1916	2		2										
1917~ 1921	0												
1922	2		2										
1923	12		7	5									
1924	11		6	5									

년 『每日申報』에 박노식의 이름으로 「春」 5句로 게재된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11) 이 잡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좀 더 조사한 후에 보완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朝鮮(朝鮮及滿州)」과 이름이 같아 혼동하기 쉬우므로, 본고에서 구별하기 위해 [12]朝鮮이라고 명명하겠다.

년에 처음으로 게재하였는데 그 후 『ホトトギス』에 실린 한국 작가 하이쿠 78句는 모두 박노식의 작품이다.¹³⁾ 『地上樂園』은 시라토리 세이고(白鳥省吾)가 창간한 시 잡지로, 유명한 문학평론가 白鐵이 『地上樂園』5-3호에 追悼吟集 하이쿠 3句를 게재하였다.¹⁴⁾

신문은 『京城日報』 『釜山日報』 『每日申報』 총 3종에서 하이쿠를 실었는데, 그 중 한국어 신문 『매일신보』의 하이쿠 게재는 6句로 극히 적었지만, 일본어 신문인 『경성일보』 『부산일보』는 각각 55句, 82句로 상당한 양의 하이쿠가 게재되었다. 『경성일보』의 경우 1916년부터 1933년에 걸쳐 17년 동안 하이쿠를 게재한 것에 비해 『부산일보』는 1929년과 1930년, 즉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81句를 쏟아내었다. 그 중 金大日의 작품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¹⁵⁾

1933년, 1934년을 기점으로 하이쿠 게재 句수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1930년대 후반부터 하이쿠를 게재하기 시작한 잡지는 『綠旗』 『國民總力』 『清涼』 『三千里』 『水碓』이다. 그 중 『綠旗』와 『國民總力』은 1930년대 후반 이후 나온 천황주의 사상단체의 기관지인데, 『綠旗』의 경우 1940년 8월, 30명의 하이쿠를 실은 이후로 더 이상 게재하지 않았으며, 『國民總力』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하이쿠가 게재되었으나 단 6句에 지나지 않는다.

13) 박노식(1897-1933)은 36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무려 699句의 하이쿠를 남겼으며 사망 후 朝鮮の俳諧佛라 불릴 정도로 인정받는 식민지 시기 최고의 한국 작가 俳人이었다. 『カリタゴ』의 수기에 의하면 박노식의知己 김옥봉 역시 『ホトトギス』에 입선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에는 누락되어 있다.

14) 백철의 일본 유학 시기는 1927~1932년이었고 당시 『地上樂園』의 동인이었다. 1930년 『地上樂園』 5-3호에 『君逝きて獨り悲しむふぶきかな』, 『戀しさに波はなくらん夏くれば』, 『月消えて一人さまよふ我が身かな』라는 3구의 하이쿠가 백철의 이름으로 실려 있다.

15) 아쿠타가와 다다시(芥川正)에 의해 1907년 창간하여 1945년 폐간된 부산일보가 1929년, 1930년, 즉 2년 동안 갑자기 많은 수의 하이쿠를 게재한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였다. 부산일보의 하이쿠 게재 총 句 수 82句 중 김대중의 하이쿠가 53句로 전체의 65%로 반 이상을 차지한다. 아마도 김대일 한 개인이 그 시기에 하이쿠 창작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부산일보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淸涼』은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우회 문예부 부회지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이 일본어 작품을 발표하는 장이었다. 그러나 게재된 것은 단 4句뿐이었고¹⁶⁾ 『三千里』도 이석훈¹⁷⁾의 6句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하이쿠가 보이지 않는다. 1941년 조선하이쿠작가협회에서 『水砧』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는데, 여기에 1941년 16句, 1942년 44句로 상당히 많은 양의 하이쿠가 게재되었다.

3. 하이쿠 창작 계층과 활동-『カリタゴ』를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1916년 李米吉의 하이쿠를 시작으로 하여, 1944년 淸水金昊의 하이쿠까지, 한국인 작가의 하이쿠는 무려 29년간 꾸준히 게재되었다. 박노식(108句), 김대일(53句)¹⁸⁾, 장봉환(37句)¹⁹⁾등이 여러 편의 하이쿠를 발표했지만 현재 한국문학사에서 알려진 사람은 전무하다. 이것은 재한 일본인 하이쿠 결사가 대부분 공무원, 회사원, 언론인, 교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취미적 활동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²⁰⁾ 식민지 시기 재한 일본인 하이쿠 결사에 대해 연구한 허석은 재한 일본인 하이쿠 결사의 아마추어성에 대한 증거로 選者를 두지 않았고

-
- 16)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우회 문예부 부회지 『청량』에 유진오, 이효석, 최재서, 김태준 등 많은 한국인 작가 문학자들도 학생 시절 참여하고 있었다.(신미삼, 『『청량』 소재 이중어 소설 연구』, 『韓民族語文學』 제53호, 한국어문학회, 2008 참조)
- 17) 당시 이석훈은 월간 『녹기』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녹기』에서 1940년 30句의 하이쿠가 게재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친일 성향으로 전환 과정에 있었던 『삼천리』에 하이쿠를 실었던 이석훈과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 18) 김대일의 하이쿠 53句는 『부산일보』에만 한정된 것이다. 1929년 12월 28일과 12월 29일자 『경성일보』조간 7928號와 7929號에도 각각 1句씩 김대일의 이름으로 실려 있는데, 동일인물인지는 정확치 않다.
- 19) 이 수치들도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위의 책, 1997을 기초자료 삼아 산출된 것이다.
- 20) 허석, 『明治時代 韓國移住 日本人의 文學結社와 그 特性에 대한 調査研究』, 『일본어문학 제3집』, 1997, 288~289쪽 참조

독자적인 기관지를 발행하기 보다는 대중적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하는 형태로 작품 발표를 하였으며, 句會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이루어진 점을 들었다. 한국의 하이쿠 작가들도 대부분 재한 일본인에게 하이쿠를 사사 받은 후 창작에 참여했으며, 하이쿠 발표 역시 대중적 신문이나 잡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무라카미 교시(村上杏史)에 의해 1983년 일본에서 『朴魯植俳句集』이 간행되면서 박노식의 생애와 작품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총 669句의 하이쿠를 지었고, 일본 하이쿠 잡지 『ホトトギス』에 하이쿠를 실은 최초의 한국 작가였다. 그의 이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목포에서 하이쿠 전문 잡지 『カリタゴ』를 창간했다는 사실이다.

此の土地にこの人により雪解かな (高浜虚子, 『カリタゴ』創刊號, 1927)

또한 창간호엔 당시 일본 하이쿠 문단을 이끌던 다카하마 교시의 祝句가 실려 있어 박노식이 일본 본토 내 하이쿠 문단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확보된 인물이며 단순히 목포지역에 한정된 아마추어 하이쿠 애호가 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カリタゴ』에는 박노식이 句會에서 하이쿠 동호인들과 만나 창작한 일화를 기록한 수필 『武徳館道場落成記念句會』²¹⁾와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설명하는 『自句自解』²²⁾도 실려 있어 한국인 작가의 하이쿠 창작의 장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이 잡지에 게재된 다른 이들의 수기를 통해 창작 계층을 유추할 수 있다. 『カリタゴ』에 하이쿠를 자주 투고하였고 일본의 『ホトトギス』에 1년 동안 5句나 입선했었던 金玉峯은 박노식의 知己였으며, 그와 같은 목포상업학교 졸업생이었다. 김옥봉은 경성의 한 잡지사에서 시집 발행을 검토했을 정도로 시적 재능이 있었던 인물이었으나 24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다. 김옥봉을 제외하고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인물은

21) (村上杏史, 위의 책, 1983에서 재인용) 『カリタゴ』昭和5年5月號

22) (村上杏史, 위의 책, 1983에서 재인용) 『カリタゴ』昭和3年4月號

목포의 句會를 통해 박노식과 자주 만났던 鄭栢山이다. 그의 수기가 『카리타고』에 실려 있어 ‘전 도의회의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확인 가능한 김옥봉이나 정백산의 경우, 어느 정도 제국의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은 화이트칼라 계층이었는데, 이는 식민지 시기 재한 일본인 하이쿠 작가 계층과 일치한다.

『카리타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매월 한국인의 하이쿠 작품을 소개하는 神仙爐俳壇란에 낯익은 이름들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1930年 5月號자에 12명의 한국인 하이쿠 작가²³⁾의 작품이 실리는데 『釜山日報』에 51句를 게재했던 金大日, 『京城日報』와 『水砵』에서 활동했던 李淳哲²⁴⁾, 尹癸元²⁵⁾ 그리고 『朝鮮及滿州』에서 활약하다 1944년 『[12]朝鮮』에서 일본과 시즘에 동조하는 하이쿠를 창작했던 張鳳煥 등의 이름이 보인다. 『카리타고』는 목포지역의 하이쿠 동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 투고 상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하이쿠 창작 양상의 특성

12종의 잡지·신문에 게재된 한국 작가의 하이쿠 780句는 200명²⁶⁾이 넘는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 하지만 박노식, 백철, 이석훈, 김옥봉, 정백산 등을 제외한 한국 하이쿠 작가의 정보는 전무하다. 식민지 시기 재한 일본인들에 의한 하이쿠 결사 구성원들이 주로 공무원, 신문기자 등의 직업

23) 金大源, 李淳哲, 尹癸元, 金昌成, 金大日, 張鳳煥, 高亨鎮, 柳睡蓮, 梁元彬, 朴聖培, 朴琪鍾, 金玉峰 총 12명이다.

24) 이순철의 하이쿠는 1929년 12월 6일 『京城日報朝刊』7913號 『朝鮮人俳句會』에 처음으로 게재되기 시작했다.

25) 윤계원의 하이쿠는 1929년 12월 28일 『京城日報朝刊』7928號 『朝鮮人俳壇』에 처음으로 게재되기 시작했다.

26) 이 수치는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호테이 도시히로(布袋敏博), 위의 책, 1997에서 기재된 이름만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름이 나오지 않고 句 수만 표시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 가진 아마추어 집단이었기 때문에 유명 문인의 참여가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하이쿠 작가들도 신상 정보라든지, 그들에 의한 2차적 텍스트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 또한 하이쿠 작가마다 작품 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많이 지은 작가의 특징을 전체로 환원시킬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소재별로 분류하되 시기적 특성이 있다면 지적하고, 미연구 분야인 한국 작가의 하이쿠 작품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4.1. 한국의 풍경

식민지 시기 재한 일본인의 잡지·신문에 실린 하이쿠 가운데 한국을 소재로 한 것은 거의 없었다.²⁷⁾ 京城日日新聞社 俳壇部에서 모집 응모한 하이쿠 중 재한 일본인들의 하이쿠 일만여 점을 선별하여 1926년 간행한 『朝鮮俳句一万集』(경성부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인쇄)에 한국의 풍경을 읊은 하이쿠가 다수 실렸지만, 어디까지나 제국의 지배자의 시선에 의한 것이었다.²⁸⁾

반면 한국 작가에 의한 하이쿠는 전통적인 歲時記에 의한 소재는 물론이고 한국의 풍경을 소재로 삼은 것도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며, 재한 일본인과는 달리 한국의 풍경을 정감적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菖蒲髮して機嫌よし妻も娘も (張鳳煥, 『朝鮮(朝鮮及滿州)』358, 1937.9)

唐辛子アンペラ敷いて干しにけり (趙相範, 『朝鮮(朝鮮及滿州)』363, 1938.2)

창포물에 머리 감는 부녀자들의 모습이나 고추를 널어 말리고 있는 모습은 주변의 소박한 풍경을 포착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풍경을 고스란히

27) 허석, 위의 논문, 1997, 304~305쪽 참고.

28) 유옥희, 「일제강점기의 하이쿠 연구」, 『일본어문학 제26집』, 일본어문학회, 2004, 297~299쪽 참고.

을기 위해 한국어가 그대로 삼입되기도 한다.

送り出て牡丹に踏み妓生かな (朴魯植, 『ホトトギス』, 1928.8)

麥刈りやチゲにさげたる辯當バコ (朴正實, 『釜山日報』朝刊7672號, 1929.6.22)

酒幕の幕の外なる薪茶店 (金大日, 『釜山日報』朝刊7691號, 1929.7.11)

チゲ置いて畑の畦を焼きにけり (李民淳, 『朝鮮(朝鮮及滿州)』283, 1931.6)

溫突にホ句籠りともいひつべし (朴魯植, 『ホトトギス』, 1931.9)

花杏城隍堂のほとりにも (崔昌烈, 『朝鮮(朝鮮及滿州)』308, 1933.7)

溫突の隅に並ぶはもやし甕 (李杏村, 『朝鮮(朝鮮及滿州)』1326, 1935.1)

市もどりチゲにつけたる鱈一尾 (金洙學, 『朝鮮(朝鮮及滿州)』328, 1935.3)

遊船のまなかに据ゑぬ神仙爐 (郭燕子, 『朝鮮(朝鮮及滿州)』331, 1935.6)

妓生の少し日焼けていとしけれ (張鳳煥, 『朝鮮(朝鮮及滿州)』333, 1935.8)

焚火して城隍堂の祭かな (朴云赫, 『朝鮮(朝鮮及滿州)』354, 1937.5)

周衣を吹かれ氷江わたり來る (李永鶴, 『朝鮮(朝鮮及滿州)』365, 1938.3.31)

月明や李氏と讀まるゝ烈女の碑 (朴云鶴, 『朝鮮(朝鮮及滿州)』386, 1940.1)

한국어 어휘인 기생(妓生), 지게[チゲ], 주막(酒幕), 온돌(溫突), 성황당(城隍堂), 신선로(神仙爐), 두루마기[周衣], 열녀비[烈女の碑] 등이 1928년 박노식의 하이쿠를 시작으로 빈번히 보인다. 사실 한국어 삼입이 한국 작가

의 하이쿠에 한정된 일은 아니었다. 재한 일본인의 하이쿠집인『朝鮮俳句一万集』에도 기생(妓生), 지게[チゲ], 온돌(溫突) 등의 한국어가 간간 보이기 때문이다.²⁹⁾ 『朝鮮俳句一万集』의 편집자인 도다 우효(戶田雨瓢)가 서문에서 “조선 특유의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뽑아서 반도의 문예를 널리 세상에 소개하고자” 하는 간행 목표를 밝혔으며, 실제로 한국 전원의 소박한 풍경, 글 읽는 양반이나 빨래터의 아낙네들, 기생, 지게꾼들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본토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제국 안의 하나의 지방으로써 “조선 반도”라는 공간을 구성해나가는 요소로 이용되었다. 이 책에 박노식을 포함한 약 10명가량의 한국인도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한국어 어휘 사용은 당시 하이쿠 창작에서 예외적인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작가가 하이쿠에 한국어를 삽입한 것은 ‘본토에 대한 지방’이라는 관념을 실재하는 것으로 생생하게 상상케 하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4.2. 정치적 성향

1916년부터 『國民總力』에 하이쿠가 게재되기 전 해인 1940년까지 한국 작가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소재로 하이쿠를 창작한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 재한 일본인의 하이쿠에서 조선을 비하하거나 제국의 지배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예가 발견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인의 하이쿠는 식민지의 상황을 비판도, 긍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歲時記에 의한 일반적인 제재에 의한 것이나, 소소한 자신의 일상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母の肩叩きながらに涼みけり (朴魯植, ホトトギス, 1929.10)

29) 『朝鮮俳句一万集』에서 나타난 하이쿠의 성격에 관련된 논의와 아래 도다 우효의 서문은 유옥희, 위의 논문, 2004를 참조하였다.

届きたるコレラ豫防の繪ピラ (金大日, 釜山日報朝刊18084號, 1930.8.21)

事務室にさしこむ春の日の影かな (李殷錫, 朝鮮及滿州329, 1935.4)

母よりも父が好き な子ちゃんちゃんこ (張鳳煥, 朝鮮及滿州343, 1936.6)

목포의 조선흥업주식회사 사원이었던 박노식은 평소에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함께 句會에 자주 참석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句會를 열기도 했던 하이쿠 애호가였다. 그가 병에 걸리자 일본인 친구들은 그를 위해 요양지를 마련해 주고 그 곳에 春の山라는 별칭까지 지어 그의 쾌유를 빌었다.³⁰⁾

親日と言われて住めり花ばかり

이와 같이 親日, 즉 일본통으로 불리며 일본인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드러내는 하이쿠는 발견되지만,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하이쿠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무정치적 성향은 1940년까지 대부분의 한국인 하이쿠 작가에 해당하는 성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준비되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제국은 만주 이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게 되고, 이에 따라 본토와 식민지는 점차 파시즘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일본의 만주 공략을 연상시키는 하이쿠가 소수나마 보이기 시작한다.

滿州の國旗を立てて初筏 (孫林子, 『朝鮮(朝鮮及滿州)』307, 1933.6)

いかづちや北へ北へところごと (朴云熾, 『朝鮮(朝鮮及滿州)』335, 1935.10)

1940년대에 들어오면 『國家總力』 『綠旗』 같은 천황주의 사상단체가 기관지를 창간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파시즘에 동조하는 하이쿠가 게재되기

30) 村上杏史, 위의 책, 1983, 16-17쪽

시작한다.

國旗見ゆ譽の家や御代の春 (金鳳仙, 『國民總力』3-2, 1941.2)

그렇다고 해서 1940년대 하이쿠가 모두 이와 같았다는 것은 아니다. 조선하이쿠작가협회는 1941년 『水砧』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는데, 여기에 실린 하이쿠들은 앞 시대의 하이쿠처럼 자연이나 일상을 읊기도 하였으며, 전시상황을 읊되 일본의 파시즘을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하이쿠는 보이지 않는다.

刈り胡麻のしきりにはじき庭殘暑 (李淳哲, 『水砧』1-6, 1941.12)

飛行機降り乙女秋日に楚々と立つ (金本笛允, 『水砧』1-6, 1941.12)

看護婦の服眞白し菊匂ふ。(平山鉉秀, 『水砧』1-7, 1942.1)

여기서 눈에 띄는 전 시대와의 차이점은 창작자들의 이름이다. 李淳哲이나 許淡, 尹錦元 등을 제외한 이름이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창씨개명이라는 정치적 강요에 의한 것이다. 한국인 하이쿠 작가들이 일반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창씨개명을 했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지만, 적은 숫자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일단 자료가 더 많이 확보된 후에 분석해보겠다.

光榮に輝く半島學兵 (櫻井張鳳煥, 『[12]朝鮮』347, 1944.4)

長雨に甲種合格して歸る (清水金昊, 『國民總力』6-19, 1944)

干草をさはがしく打つ雨の粒 (清水金昊, 『國民總力』6-19, 1944)

『水砧』은 1942년을 마지막으로 간행되지 않았으며, 1943년부터 1944년까지 2년간은 『[12]朝鮮』 9句, 『國民總力』 3句, 『釜山日報』 1句, 『京城日報』 2句로 드물게 하이쿠가 게재되었다. 예시문의 3句는 마지막 해인 1944년에 실린 것들이다. 清水金昊의 경우는 본명 미상이라 창씨개명 전의 창작 경력을 알 수 없다. 櫻井張鳳煥의 본명은 張鳳煥으로 그의 하이쿠는 1931년 8월 『朝鮮(朝鮮及滿州)』285에 처음 보이기 시작하여 총 37句가 게재된다. 예시문 바로 직전인 1940년 7월 『朝鮮(朝鮮及滿州)』392에 게재된 [枯木なかけものゝごとく人住める]까지 그의 하이쿠에는 일본의 파시즘에 동조하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1944년 게재된 句는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기존의 한국 작가의 일본어문학 연구와 하이쿠

식민지 시기 한국 내에는 한국어로 쓰여진 작품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쓰여진 작품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시기 한국어와 일본어 혼재 상황에 대해 정백수는 “이언어상황”이라고 명명하였고 “이중언어작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윤식 또한 “이중어 글쓰기”를 한국 근대 문학 연구자들의 과제로 상정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는 한국 작가에 의한 일본어 문학을 친일의 문제로 소급해버렸던 과거의 친일-반일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반성하고 한국 문학의 연구대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각을 제시했다.³¹⁾ 이들 대부분은 일본의 제국주의의 국가권력이 사회제도 전체

31) 노상래는 「일제하 이중어문학의 연구 성과와 기대 효과」(『어문학 제120집』, 2008)에서 이중어문학 연구의 시점을 친일문학연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임종국의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2006를 이중어문학 연구의 선편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 비평의 관점에서 ‘국민문학’이나 ‘친일-민족’이라는 잣대를 반성하고 식민지 시기 한국인의 일본어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의 연구만을 지시하고자 한다. 저서로는 정백수의 『한국 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아세아문화사 2000), 김윤식의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이 있고 논문으로는

를 장악하는 식민지 말기의 문화상황 속의 일본어 문학에 한정되며 장르는 소설 혹은 현대시에 집중되어 있다.³²⁾ 정백수는 한국 작가에 의한 일본어 작품이 식민지 초기와 말기 각각 다른 상황 속에 놓여있다고 보고 초기의 일본어를 이광수의 「愛か」를 예로 하여 일본 혹은 일본을 경유한 근대적인 제도와 문화가 유입될 때, 그 문화의 유입을 식민본국과 식민지 주민 사이에서 중계한 유학생의 언어로 분석했고, 말기의 경우 김사량의 소설을 예로 하여 「내선일체」 즉 일본어·일본문화에 의한 국민(황민)적 통합이 식민지주민에게 강요된 정치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국어」라는 언어로 규정했다.³³⁾

하지만 같은 식민지 시기라 하더라도 한국인 하이쿠 작가의 경우 위와 같은 기존 연구의 시각에 수렴되지 않는다.

첫째, 작가층의 성격이 상이하다. 일본어 소설·현대시를 창작한 계층이 대부분 일본 유학이나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 제도에 의해 양성된 지식인들이었고 무엇보다 상당수가 직업적 문인들이었던 반면, 하이쿠를 창작한 계층은 비록 제국의 교육제도 안에서 양성된 인물들이긴 했으나 공무원, 회사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의 여흥으로 하이쿠 창작을 했던 애호가들이다. 물론 박노식의 「カリタゴ」와 같은 하이쿠 전문 잡지가 존재했으나 이는 몇몇의 특출한 하이쿠 작가들에 한정된 것으로, 대부분 신

오영진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로 씌어진 한국시 연구」(『일본학 Vol.22』,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3), 노상래, 「일제 말기 소설을 통해 본 일본어 글쓰기 양상」(『현대소설연구, Vol.2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김환기, 「김달수의 초창기 문학 연구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모색-」(『일본학보, Vol.76』, 한국일본학회, 2008), 정병호 「20세기 초기 일본의 제국주의와 한국 내 「일본어문학」의 형성 연구 -잡지 「조선」(조선(朝鮮), 1908-11)의 「문예」란을 중심으로-」(『일본어문학, Vol.37』, 한국일본어문학회, 2008) 등 대부분 2000년도를 기점으로 나오는 추세이며, 저서를 제외한 논문들의 대부분이 일본문학 전공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32) 예외적으로 정백수의 경우, 일본어를 매개로 하여 서구의 근대적인 문화양식을 수용했던 식민지 초기 일본에 갔던 한국인 유학생, 특히 이광수를 중심으로 일본어 문학 창작에 대해 논의하였다.

33) 정백수, 「한국 근대의 植民地 體驗과 二重言語 文學」, 아세아문화사, 2002, 48~49쪽 참조

문·잡지 등에 투고되어 실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句會 또한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의 공공건물이나 개인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점에서 대부분의 한국인 하이쿠 작가들은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인에 의한 하이쿠에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의한 작가의 입장이나 사상적 지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930년 중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제국의 식민지 정책이 전쟁총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전까지 전통적인 歲時記에 의거한 자연물이나 소소한 일상을 제재로 한 하이쿠들이 주를 이루었고, 시대의 정치적 변화를 감지해 낼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후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는 소수의 하이쿠도 천황주의 사상단체의 기관지인 『國家總力』 『綠旗』 등에 한정되었고, 그 밖의 하이쿠는 무정치적 성향을 보인다. 이는 당시 제한 일본인들의 하이쿠에서 제국의 지배를 옹호하거나 한국인과 그들의 풍속을 비하하는 경향성이 드러나는 것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그다지 句解를 해야 할 정도의 句는 아닙니다만, 『カリタゴ』본부의 요청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에 나타난 저의 가난한 생활의 일부분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도쿠나가 야스오(徳永やすお)군을 시작으로 목포상업학교의 이마이 시소시(今井紫蘇子)씨와 김옥봉군이 찾아 왔습니다. (이번에 게재한 하이쿠는) 이 젊은 신진작가들을 온들로 맞이하여 하이쿠 삼매경에 빠진 그날 밤의 수확 중 하나였습니다. 이 구는 매일 보는 낮익은 초암의 정원의 실경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략) 언젠가 다시 퇴고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까운 곳에 있던 것을 제재로 삼을 수 있었던 기쁨에 〈この庭や冬ざれの甕あるばかり〉를 읊조리면서 손님들을 배웅했던 것은 황량한 겨울 깊은 밤이었습니다.³⁴⁾

위는 박노식이 자신의 하이쿠를 풀이한 「自句自解」이다. 식민지 시기 소설의 작가들이 제국의 언어와 모국어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위치해

34) 『カリタゴ』昭和三年四月號

있었던 것과는 달리 박노식에 있어 하이쿠는 애호의 대상이었고 하이쿠 창작은 취미적 활동에 가까웠다. 한국인 하이쿠 작가들의 창작 의식에 대한 2차적 텍스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단언하기 어려우나, 하이쿠에 대한 박노식의 이와 같은 의식은 한국 작가의 하이쿠가 무정치·사회적인 성향성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6. 맺음말

식민지 시기 일본어문학 작품은 ‘親日’이라는 관점과 관련되어 달가운 과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문학에도 한국문학에도 편입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한국인 작가의 일본어문학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되면서 조금씩 재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쿠는 일본의 전통시가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 많은 한국인들에게 의해 창작되었으며, 천황주의 사상단체의 기관지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지에도 자발적으로 투고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향수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의 원인으로 노상래는 “하이쿠가 가장 ‘일본적’이기 때문”³⁵⁾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일본적’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면 이는 논리적인 이유이기보다는 정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이쿠가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유로는 첫째, 한국문학에 있어 식민지시기 문학 작품의 장르로 ‘하이쿠’ 자체가 생소했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둘째, 기존 한국인 작가의 일본어문학 연구에서 제국주의적 국가 권력에 의한 국어(일본어)와 모국어(조선어)의 긴장 상황 안에서의 텍스트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한국인 작가의 하이쿠는 이러한 시각 밖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국인 작가의 일본어문학 창작은 소설, 현대시

35) 노상래, 「일제하 어중어문학의 연구 성과와 기대 효과」, 『어문학』제102집, 2008, 375쪽

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본고에서 설명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한국인 작가의 일본어문학 연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³⁶⁾ 검토하는 것과 혹시라도 하이쿠가 식민지 경영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 논문으로 미룬다.

- 핵심어: 하이쿠, 한국 작가의 일본어 문학, 식민지, 박노식, 이중어문학

36) 본고에서 논의한 하이쿠 외에 센류는 1941년 8월 7일 『國民總力』3-8에 新井仁春의 1吟 이후로 총 4吟이 지어져 그 수가 극히 적음에 반해, 와카·단카의 경우 張元鐘이 1923년 11월 29일 『京城日報』朝刊5750號에 「逝ける秋」 7首를 게재한 이후로 총 218首가 창작되었으며 短歌集도 총 4권이 간행되는 등 상당수의 작품이 존재하고 있다. 短歌의 경우 하이쿠보다 그 양은 적지만 당대에 개인 短歌集이 발행되었던 점에서 1983년이 돼서야 개인 작품집(박노식)이 나왔던 하이쿠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참고 문헌>

○국내 논저

- 정백수, 『한국 근대의 植民地 體驗과 二重言語 文學』, 아세아문화사, 2002.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임성모, 『조선과 만주-총 목차 인명 색인』, 어문학사, 2007.

- 김은철, 『동아시아에서의 하이쿠의 전개양상과 번역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33집』, 2007, 149~152쪽.
노상래, 『일제하 어중어문학의 연구 성과와 기대 효과』, 『어문학. 제102집』, 2008, 375쪽.
신미삼, 『『청량』소개 이중어 소설 연구』, 『韓民族語文學. 제53호』, 한국어문학회, 2008, 100~101쪽.
유옥희, 『일제강점기의 하이쿠 연구』, 『일본어문학 제26집』, 일본어문학회, 2004, 275~300쪽.
허 석, 『동서양의 비교를 통한 해외 이주 일본인 문학 활동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일본어문학 제6집』, 1999, 256~257쪽.
허 석, 『明治時代 韓國移住 日本人의 文學結社와 그 特性에 대한 調査研究』, 『일본어문학 제6집』, 1997, 281~307쪽.

○외국 논저

- 村上杏史 編, 『朴魯植俳句集』, 柿發行所, 1983.
大村益夫, 布袋敏博 編 『朝鮮文學關係日本語文獻目錄』, 早稻田大學語學教育研究所 大村研究室, 1997.

<Abstract>

The Aspects of Haiku Creation by Koreans during Colonial era

Hur kyoung-jin, Park Hea-mi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spects of Haiku which was written by Korean during the colonial era and present the possibility of future study. To date, there has been minimal research regarding Japanese literature by Korean because of the colonial experience. However, Japanese literature by Korean is widely researched from the postcolonial angle, Even though much has been said about Japanese poetry and fiction, Haiku is still vastly unexplored. According to 'The List of Japanese Books related to Joseon Literature,' which is edited by *Omura masuo · Hotei toshihiro*, there are 780 Haiku works among about 5000 Japanese literature works by Korean.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journal which contains 780 Haiku works, th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period and topic. Haiku works were recorded on 13 kinds of journal and the first one written by *Lee Mikal* was on press 'Kyoungsung' in 1916. Haiku works had been actively created from 1929 to 1933 and then gradually disappeared. Based on the topic, there are noticeable characteristics. 1) life style in those days and Korean spelling 2) from 1930s to 1940s: China-Japan War and the Pacific War.

Korean people created Haiku spontaneously while fiction and poetry were created by Japanese fascism. Not only a study on Haiku, but the view point to Korean literature should be diversified.

• Keyword: Haiku, Japanese literature as Korean, colonial era, postcolonial, *Park Nosik*, journal *Joseon*

* 이 논문은 2009년 7월 13일 투고되었고, 8월 5일 심사 완료되어 8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